



농림수산부, 가축전염병박멸대책 위원회 설치 운영

농림수산부는 지난 2월 6일 매년 돼지질병 피해를 막기 위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나, 양돈농가의 피해는 계속 확산되고 있고, 특히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콜레라, 전염성위장염 등으로 인해 국내 양돈업계에 불안감이 고조되어 이러한 주요 전염병을 완전히 근절하기 위한 방역대책을 수립·추진코자 「가축전염병박멸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키로 하고, 대책위원을 선정하였다.

가축 전염병 박멸대책위원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장(김창수),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김선중 교수·채찬희 교수·박용호 교수·박응복 박사, 건국대학교 축산대학 김순재 교수, 축협중앙회 축산기술환경부장(박노원)·한우개량부장(원유석)·유우개량부장(이문성), 서울경기양돈협동조합장(이치현), 경기 이천군축협조합장(서동필), 대한양돈협회 전무(노영한), 양돈산학연구회(우영제), 양돈개발연구원장(김영욱), (주)다비육종 대표(윤희진), 청화농장 대표(한백용), 도드람 양돈클리닉(정현규), (주)제일종축(한병우), 문선농원 대표(홍문표), 도드람 대표(진길부), 인천광역시 가축위생시험소장(손봉환), 축산기술연구소(이광원, 이수현), 한국낙농육우협회(김인식), 서울우유 파주 유우진료소장(김영찬), 한국미생물연구소(박정문 박사), 현촌목장 대표(현종각), 흥원농장 대표(신덕현), 대한양계협회 전무(이규성), 대한가금처리협회장(김흥국), 한국양계연구소장(김영한), 한국실험동물연구소(김상희박사), 남덕씨니테크 대표(오경록), 체리브로식품 대표

(김인식), 중원농장 대표(배선채), 삼우축산 대표(최우영), 영남농장 대표(최길영).

가축 도축전 개체별 검사 추진

- 정부, 식육의 안전성 확보 위해

식육의 안전성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가축의 도축전 개체별 검사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축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축전에 가축을 개체별로 검사해 유해 잔류물질이 검출된 가축출하자를 특별 관리 함으로써 축산물의 안전성을 보호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를위해 농림수산부는 지난해 말부터 도축직전의 가축에서 혈액을 채취해 항생제 등 유해잔류물질을 검사하는 방법을 도입, 수의과학연구소 등에서 적합성 여부를 시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 상반기중 개체별 안전성 검사의 효능과 실효성이 확인되면 부분적인 현장실험을 거쳐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같은 방법이 도입될 경우 식육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을 불식시켜 상대적으로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는 수입축산물과의 경쟁에서도 한껏 유리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 육류중 유해성물질 검사요령 고시

앞으로 도축장에 출하되는 소, 돼지, 닭 등 가축은 유해성 잔류물질 검사결과 정부가 정하는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유통에 제한을 받게 된다.

농림수산부는 지난 2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96육류 중 유해성 잔류물질 검사요령」을 제정·고시함으로써 육류의 안전성 확보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또 수입육에 대해서도 동물검역소를 통해 유해성 잔류물질 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육류의 안전성 문제를 제도적으로 확보키 위해 식용목적으로 도축되는 소, 돼지, 닭은 사전계획에 따라 도축전 생체검사와 지육검사를 받도록 했다. 도축전 검사에서 유해 잔류물질이 허용치보다 높게 나올 경우 도축 불합격 판정을 내려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했다. 또 한번 양성판정을 받은 가축을 출하한 농가는 특별관리를 받게 되며 다시 가축을 출하할 경우 잔류물질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유통을 제한받게 된다.

배합사료업체, 대리점 공급가격 인상 단행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1일부터 우성사료, 천하제일사료, 삼양사, 두산종합식품, 동방유량, 퓨리나코리아, 제일제당, 미원, 대한제당 등 국내 사료분야의 대기업군에 해당하는 9개 배합사료업체들이 옥수수, 수수등의 국제곡물가격 상승과 수송비등의 물류비 상승등을 인상요인으로 내세워 9.1%~12%의 선에서 대리점 출고가격 인상을 단행하고 1일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거래명세서를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부 중소배합사료업체들도 이들 대기업군들의 인상을 관망한 후 조만간 이와 유사한 수준의 가격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져 전 축산업계가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96년 상반기는 95년 하반기에 비하여 재료비가 20%, 경비가 약 1% 인상되는 등 총 인상요인인 21%에 이르러 9~12%의 사

료가격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2차 판매자인 농협은 이러한 인상요인은 인정하지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축산업계의 여건을 감안, 인상 계획을 유보해 줄 것을 지난 1일 서면 요청하였으며 정부측도 불가안정 차원에서 인상 시기의 부적절을 내세워 업체에 인상 자제를 당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96년 세계 옥수수 재고량 10.8% 수준

미국 농무성은 지난 1월 16일 발표한 '96년도 곡물수급예상에서, 옥수수는 미국내 사료용 및 수출 등의 수요가 상향수정된 결과, 미국의 기말재고가 지난 20년 동안 최저수준인 6%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전세계 재고율도 10.8%로 72/73년의 식량위기 수준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수급예상은 지난번 발표내용에 비해 사료수요는 7천5백만부셀, 수출용은 5천만부셀이 늘어 '96년 8월말 기말재고가 5억7백만부셀까지 줄어든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 시설개선자금 지원 동결

- 정부, 부가세영세를 정착 유도 일환

축산농가의 시설자동화를 통한 전업화를 유도하기 위한 일환으로 축산 기자재 업체에 지원해 주던 「축산기자재업체 시설자금」이 올해는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수산부는 지난 1월 19일 '95년 3월부터 시행되어 온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50개 품목과 관련하여 업체들의 후속자료 제출 미비 등 협조태도가 미온적인데 대한 총격요법으로 금년 한해동안 생산시설 자금지원을 중단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올해 중단된 시설자금은 내년부터 재개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아직 정착안된 축산기자재 업계에 부가세 영세율적용과 관련된 자료만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영세율적용의 정착을 위해 모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고 국내 축산 농가의 자동화를 통한 전업화를 위해서는 국내 시설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전농, '96 전국농민대회 개최

전국 농민총연맹(의장 : 이수금)은 지난 2월 1일 보라매공원에서 5천여명의 농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보험통합 및 쌀자급과 직접지불제도 쟁취를 위한 96 전국농민대회」를 개최하였다.

영하의 추위속에서 강행된 이날 농민대회에서는 의료보험 통합실시와 쌀자급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비롯한 직접 지불제 실시, 농산물 가격보상책 마련, WTO이행 특별법 제정, 농정개혁 7대 과제의 조속시행 등 6개항의 결의문 채택 후 흥농종묘 향의방문에 나섰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창복 전국연합의장과 배석범 민노총 부위원장, 김용익 의료보험 통합 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이경해 전북도의원 등 각계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돈육 MMA물량 20개업체로 낙찰

- 최저공매납입금 kg당 312원으로 24.8% 상승

지난 2월 2일 축협유통사업단 회의실에서 58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96 돼지고기 MMA물량 2만2천9백42톤의 수입권공매」 결과, 최저공매납입금이 kg당 312원으로 95년 평균납입금 250원보다 24.8% 상승되어 1차 수입권 공매로 전량낙찰되었으며, 공매납입금 상승에 따른 수입 후 국내 판매가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체별로 낙찰현황을 살펴보면, 현대 3,000톤, 한라자원 617톤, 쌍용 134톤, 동양글로벌 600톤, 해태 2,420톤, 효성 621톤, 거평(거평유통 포함) 4,000톤, 제일제당 800톤, 롯데햄 200톤, (주)진주 300톤, 한성 1,000톤, 축협 2,500톤, 축산무역 1,000톤, 성지 100톤, 성도 150톤, 대한제당 1,000톤 등 총 22,942톤이 낙찰되었다.

미국, 돼지고기 무역관련 일본·대만 301조 제소 예정

일본경제신문 1월 27일자에 의하면, 미국 식육업계는 일본으로 수출되는 대만산 돼지고기 가격이 불공정하게 조작되었다고 전하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미통상법 301조(무역상대국의 불공정 거래관행에 대한 보복)에 따라 일본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국양돈협회는 미국산 돼지고기의 시장참여를 저지하기 위해 일본과 대만 식육업계가 특수한 관세제도를 통해 미국의 참여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하며 수입가격이 기준가격 이하일 경우 차액을 관세로 지불하는 일본의 돼지고기 수입제도를 이용, 대만의 돼지고기 수출업자들이 수입가격을 실제가격보다 높게 신고해 미국산에 고액관세 대상에 적용시켜 경쟁력을 상실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부, 종돈장 사독백신 접종 허용 검토

지난 1월 22일 개최된 돼지오제스키병 박멸사업 추진 회의 결과에 따르면, 돼지오제스키병 발생지역 인근 종돈장의 종모돈에 대한 사독백신의 접종을 허용하는 문제는 해당 종모돈에 생산된 종돈을 분양할 시점(90kg정도)에는 이행항체가 소멸되므로 검사실시에는 문제점이 없고 종모돈에는 백신접종시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기

술적 문제를 검토 보완·해결해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는 경기·충남의 주요 발생지역에 위치한 종돈장의 종모돈에 한하여 사독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업계의 의견을 수렴후 실시하기로 했다.

생독백신 접종 허용은 발생동향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실시하기로 잠정 결정하는 한편 돼지오제스키병 박멸사업단의 백신공급은 각 사업반이 주관하여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 축협이 소요량을 매월 2회(15일,30일) 축협중앙회에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구입·공급하여 지역축협의 양돈농가에 배부하도록 계획을 수립했다.

또 발생농장들은 돼지의 출하도축장을 지정할 시 가축위생시험소장은 발생농가가 기존에 거래하는 도축장을 지정하여 조속히 도태하도록 조치하도록 하였으며, 양성축 도태 후 재검사시에는 모돈, 종웅돈은 전두수 검사하되 자돈과 비육돈은 일정두수만 검사토록 제도를 보완하여 추진하도록 계획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올 종돈 1,192마리 기관·농장별 배정량 확정

정부가 올해 최소시장접근(MMA)방식으로 들여올 종돈과 종우의 물량을 각각 1천1백92마리, 6백87마리로 확정함에 따라 수입신청기관인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수입종돈과 종우의 기관 및 농장별 등의 배정물량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 1월 23일 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설동섭)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종돈의 수입계획물량을 당초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에서 정한 최소시장접근물량 1천1백92마리로 결정함에 따라 9개 국·공립 연구기관 및 돼지인공수정센터(AI)에 2백47마리, (주)미원농장을 비롯한 47개 등록 및 검정농장에 9백45마리를 배정했다.

한편 관련업계에선 올해 종돈의 최소시장접근 물량이 지난해 2천6백17마리에 비해 45% 수준으로 크게 감소함에 따라 신청량에 비해 턱없이 적은 양을 배정받은 일부 농가들이 배정기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전북종축장·축산기술연구소 등 2개 국·공립 연구기관과 합천돼지인공수정센터 등 7개 민간인공수정센터는 올해 신청물량(3백5마리)의 80.9%, 47개 종돈장은 신청물량(5천3백7마리)의 17.8%를 배정받았다.

95년 서울 3개 도매시장 돼지출하 154만두

축산물등급판정소가 발표한 「95년 축산물등급판정 현황 및 등급별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3개도매시장에 출하된 돼지는 총 1,539,877두로 '95년 한해동안 우리나라의 전체도축두수 10,178,072두의 15.13%에 달했으며, 이중 축협서울공판장은 808,841두, 우성농역은 465,104두, 유창식품은 265,932두를 각각 출하·상장되어 지육kg당 평균경락가격은 2,306원, 2,336원, 2,406원을 각각 나타냈다.

등급별 출현율을 살펴보면, 축협서울공판장의 경우 A등급은 전체출하두수의 7.84%(2,720원), B등급은 28.58%(2,546원), C등급은 37.55%(2,313원), D등급은 17.43%(2,141원), E등급은 8.6%(1,431원)였으며,우성농역의 경우 A등급은 전체출하두수의 6.38%(2,729원), B등급은 34.42%(2,569원), C등급은 34.80%(2,360원), D등급은 14.72%(2,171원), E등급은 9.68%(1,413원)였으며,유창식품의 경우 A등급은 전체출하두수의 15.08%(2,627원), B등급은 32.99%(2,560원), C등급은 29.57%(2,403원), D등급은 15.59%(2,251원), E등급은 6.77%(1,530원)으로 나타났다.